



**전북대 신충균 교수,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신충균 교수(일본학과)가 대학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며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2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오전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일본학과 1회 졸업생인 신 교수는 인문대학장 등 학내 보직을 수행하며, 20여 년 근무 기간 수당 일부를 모아 학생 장학금 등의 기금을 출연해 왔다. 대학발전을 위한 꾸준한 기부는 3천만 원에 이른다. 신충균 교수는 "날로 위축돼 가는 인문학 분야는 학내외 재정지원 또한 아쉬운 부분이 크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본학과의 교육과 학술행사에 유익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남원 도동동, 이불 세탁 서비스 진행**

남원시 도동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에서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 사업을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형이불 등 세탁이 어려운 목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이불 수거·세탁·건조·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위생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특히 인부를 확인하며 복지취약 사각지대 발굴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상담뿐만 아니라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의뢰된 취약계층의 이불 세탁 서비스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동에 신청할 수 있고 상시 운영 계획이다.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몸이 많이 불편해 목혀졌던 이불을 꺼내기가 많이 부끄러웠는데 빨래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대형이불 빨래는 취약계층이 해결하기 힘든 일로보다 더 좋은 사업이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보건소, 건강검기챌린지 운영 시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사회적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워크 앱을 활용해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걷기실천에 참여 가능한 건강검기챌린지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2일 따르면 김제의 2023년 비만율은 전북특별자치도 33.0%에 비해 높은 34.9%이고 연간 체중조절 시도를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대비 8.8% 낮은 50.9%다. 시는 김제시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가념일 맞춤형 걷기챌린지를 월 1회 운영하며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챌린지를 운영한다. 스마트폰으로 워크 앱을 다운로드 받아 [김제시 보건소 커뮤니티]에 가입한 이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간 내에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완료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성공 물품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간담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2일 시 마을세무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마을세무사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마을세무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마을세무사는 한국세무사의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제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시는 현재 제7기 4명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난 2016년 6월 첫 상담을 시작해 매월 1회 해당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 시민들이 보다 쉽게 세금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10월부터 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승고한 희생 잊지 않을 것”**

유희태 완주군수, 6.25 참전유공자 유족에 무공훈장 전수

완주군이 6.25 참전유공자인 故인영환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전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故인영환씨는 8·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을 통해 공훈을 인정받아 올해 무공훈장을 수여 받았다.

지난 1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 직원이 모인 청원 월례회의를 통해 유족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직접 무공훈장을 전수했고, 직원들은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희태 군수는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들의 승고한 뜻을 절대 잊지 않고 보호가족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유희태 군수는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들의 승고한 뜻을 절대 잊지 않고 보호가족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들의 승고한 뜻을 절대 잊지 않고 보호가족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들의 승고한 뜻을 절대 잊지 않고 보호가족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리농협, 2024 농협 농식품 가공공장 경영대상 금상 수상**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이 2일 농협중앙회 정례대회에서 농식품 가공공장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해리농협은 2012년 고창군으로부터 소금 가공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개시한 천일염 가공사업소를 중심으로 고창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천일염을 관내 농가로부터 전량 계약 구매하여 원물중심의 1차 농산물의 단순 포장 유통을 벗어나 위생적인 첨단 HACCP 가공시설에서 선별, 세척, 탈수, 건조해 복분자, 함초, 마늘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소금과 소금사탕, 천민금 프리미엄 세트 패키지 상품 등 30여종의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군으로 특화해 농협식품분사와 농협 목우촌, 오투기 등 대형유통업체 및 전자상거래, 수출에 이르는 다양한 유통경로로 시장개척



키, 소금 초콜릿 등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김갑선 조합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협식품 선도농협으로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부단한 혁신과 끊임없는 시장개척활동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활동을 벌여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을 선도한 대표농협으로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리농협은 지난해 관내 소금생산 조합원으로 3,000톤 45억의 천일염을 계약 구매하여 68억의 가공사업 매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024년도에도 소금 쿠키, 소금 초콜릿 등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김갑선 조합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협식품 선도농협으로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부단한 혁신과 끊임없는 시장개척활동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남원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제)는 2일 남원의료원과 연계,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진료소)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남원의료원 오상미 내과 과장을 초빙해 △심방세동 및 심뇌혈관질환의 이해 △카타이 모바일 기기 관리 및 실습 △검사 결과 의뢰 및 사업추진 절차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만성질환자,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및 AI-Hi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 방향을 교육했다.

현재 남원시는 뇌졸중 고위험군인 심방세동 환자 조기발견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심방세동 선별검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시민 중 간이심전도 검사 희망자들은 카타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1차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남원의료원에서 추가 검사와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노인복지센터와 협약 체결**

남원시 운봉읍행정복지센터(읍장 이은주)는 최근 지리산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김혜진)와 운봉읍의 복지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운봉읍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업무에 협조, 지리산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진행됐다.

이에 센터는 읍에서 추진하는 △달빛찬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읍에서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형돌봄 서비스 △취약 노인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혜진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해 2021년 12월 남원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지역사회 연계·협력 간담회를 실시하여 2024년 선별검사 지원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소 방문보건팀 정희연 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황토현농협,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봉사 실시**

정읍 황토현농협(조합장 유형기)이 지난달 28일~29일 이틀간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는 황토현농협 임야지점에서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봉사를 실시했다.

농기계 수리봉사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는 임야면으로 찾아가는 봉사를 통해 농민들의 농업 노동력 절감과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한 황토현농협의 정기적인 행사다.

이날 진행된 봉사에서는 8대의 소형농기계(경운기, 예초기, 비료살포기 등)를 수리하고 부품을 교체했고, 13대의 트랙터 엔진오일 교체 및 점검 공임비를 무상으로 수리했다.

경운기 수리를 받은 한 농민은 “요즘 시동이 잘 안 걸리고 비료살포기도 노즐이 자주 막혀 걱정이었는데, 황토현농협에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 점검과 수리를 해주니 마음이 놓였다” 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최명권·한승우 전주시의원,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

진안군은 2일 군수실에서 전주시의회 최명권·한승우 의원이 고향사랑기부금 각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진안 백운면 및 마령고 출신의 현재 전주시의원(송천1동)으로 △더불어민주당 체육복지특별위원장 △사)지치분권포럼 전주지부사무처장 △사)국제특공무술연맹회 전북협회회장 △사)꿈드래징에인협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한 의원은 진안군 안천면 출신의 전주시의원(삼천·2·3동, 효자동)으로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정 의당전북도당 환경위원장 △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기탁사에서 “언제나 고향인 진안에 애정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진안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진안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고향인 진안을 잊지 않고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다”고 감사를 표하며, “이번 기부를 통해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고향사랑기부금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기자



**김제·성산·지평선·단야로타리, 고향사랑기부금**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일 김제 지역 로타리클럽(김제·성산·지평선·단야로타리)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제·성산·지평선·단야로타리는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기부 등 다양한 나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부액의 30%는 담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시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6.5%의 세제혜택이 있다.

김제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 곳 지평선의 고장답게 '지평선 쌀' 등 40개의 담례품을 준비해 기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해 준 로타리클럽 관계자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김제시 발전을 위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마음 하나하나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은행 순창지점, 고향사랑기부금 850만원 기탁**

순창군은 2일 전북은행 순창지점 임직원들과 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85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순창군청에서 열렸으며, 전북은행의 서두원 부행장과 김기석 지점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기석 지점장은 “전북은행 순창지점은 지역은행으로써 지역, 그리고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발전을 돕고 이웃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 순창의 발전을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전북은행의 따뜻한 기부를 발판 삼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